

18·19 세기의 여성천황·여계(女系)천황론

오카와 마코토 (大川 真, 추오대학)

【발표요지】

올해 5 월에는 새로운 천황의 즉위가 있으며 황위계승에 국민들은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초적인 지견(知見)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들 대다수의 의식은 구(旧)·현(現) 황실전범(典範)의 규정이, 전대까지의 역사적·문화적인 축적을 직선적으로 반영해서 결정되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본 연구는 황위계승을 둘러싼 논의가 비학문적인 개인의견의 괴력에 그치고 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여성천황·여계천황론이 구·황실전범(1889년 제정)의 성립 전후로 해서 어떻게 연속 혹은 변화하는지를 상세하게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의 문제를 고찰하는 데에 있어서 우선 주목해야 하는 것은 구·황실전범 제 1 조에 있는 남계남자계승주의(男系男子繼承主義)의 성립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이노우에 고와시(井上毅)의 구신(具申), 그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민권과 결사·앵명사(嚶鳴社) 내의 논쟁이다. 그리고 이노우에에게 영향을 미친 그룹에는 앵명사와 같은 도시민권과 뿐만 아니라, 국학자들의 존재가 있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남계남자주의를 주장한 고나카무라 기요노리(小中村清矩)의 영향은 컸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당시 국학자 그룹 중에는 여계(女帝)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직계, 방계(傍系)에서 남자 황족이 없을 때는 여계 천황의 즉위를 제안한 요코하마 요시아키(横山由清)도 있었다. 민권과 결사·앵명사처럼, 국학자 그룹도 결코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는 않았다. 보다 미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약력】

1974 년 군마현에서 태어남. 동북대학 문학부 졸업. 동대학원 문학연구과 문화과학전공일본사상사전공분야 박사후기 과정 수료. 박사(문학). 동북대학대학원문학연구과조교. 요시노사쿠조오(吉野作造)기념관관장을 역임했고, 현재 중앙대학 문학부 인문사회학과 철학전공 준교수. 전공은 일본사상사, 문화사, 정신사, 일본정치사상사. 주요 저서 『근세왕권론과 ‘정명(正名)’의 전회사(轉回史)』(御茶ノ水書房, 2012년). 주요 논문 「사무라이의 나라에 들어온 ‘미국’: 일본의 데모크라시에 대해 생각한다」(『淡江日本論叢』32호, 淡江大学日本語文学系, 2015년), 「요시노 사쿠조오의 중국론: 대화 20 개조로부터 워싱턴회의까지」(『吉野作造研究』제 14호, 2018년) 등.